

## 2. 입주기업과 생산 현황

### 가. 입주기업

2004년 6월 14일 시범단지에 15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8개사가 입주한 이래,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121개사가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업종분포는 섬유 70개사, 기계금속 22개사, 전기전자 13개사, 화학 9개사, 식품 3개사, 종이목재 3개사, 비금속광물 1개사 순이다. 2009년은 상반기 동안에 북한에 의한 통행 차단 등의 조치로 사업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2010년 6월말까지 28개사가 증가하였다.

기업 입주 추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업체 수	18개사	30개사	65개사	93개사	117개사	121개사

입주기업 생산업종 분포

업 체	섬 유 (섬유·봉제·의류·가죽·가방·신발)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화 학	식 품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계
업체수	70개사	22개사	13개사	9개사	3개사	3개사	1개사	121개사

입주기업의 증가와 함께 2008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의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던 북한 근로자는 2009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근로자는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가 55명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3만 명을 넘어섰다.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 4만 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북측근로자 수 추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근로자 수	7,621명	11,189명	22,538명	38,931명	42,561명	44,011명

## 나. 생산 현황

2009년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투자와 입주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도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2억 5,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총액은 2007년 1월말 1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9년 9월 7억 달러, 2010년 1월에는 8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9억 4,104만 달러를 달성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업종별 생산액은 섬유 2억 3,982만 달러, 전기전자 6,552만 달러, 기계금속 6,097만 달러, 화학 4,437만 달러, 식품·종이목재 등 기타 549만 달러였다.

업종별 생산액

(단위: 천 US 달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누계
섬 유	6,780	27,793	85,543	132,179	152,050	87,775	492,120
화 학	1,768	10,900	18,262	21,785	26,179	18,193	97,087
기계금속	5,250	20,853	41,947	49,250	37,312	23,662	178,274
전기전자	1,108	14,191	39,027	47,162	37,584	27,942	167,014
식 품	-	-	-	976	2,003	1,380	4,359
종이목재	-	-	-	70	1,313	731	2,114
기 타	-	-	-	-	34	38	72
계	14,906	73,737	184,779	251,422	256,475	159,721	941,040

###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개성공단의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 공사는 2006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2007년 10월까지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을 완공하였다. 2009년 12월 기준 용수공급용량 3만톤/1일, 폐수종말처리용량 1만 5,000톤/1일, 폐기물매립용량 6만 1,000m<sup>3</sup>, 폐기물소각용량 12톤/1일 등의 기반시설과 전력시설용량 10만kW용량을 구축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용량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12월 2차 소각시설(50톤/1일)의 건설을 추진하여 2011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북한에 의한 공단 통행차단 등의 상황 변화로 착공이 유보된 상황이다.

통신시설은 KT가 2009년 11월 유선통신 600회선을 증설하여 총 1,300회선을 확보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통신 불편 완화에 노력하였다. 향후



개성공단 전경(2009년 10월)



개성공단 소방서

국내 환경과 동등한 수준의 통신 공급을 위해 통신센터 건립, 인터넷·이동전화 개통을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대시설로는 2007년 기술교육센터가 준공되었으며, 2009년에는 종합지원센터 및 탁아소가 완공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연건평 2,181㎡, 소방차량 8대 규모의 소방서 건립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응급의료병원 등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2007년 8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된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15층, 지하1층, 연면적 3만 784㎡ 규모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공공기관의 업무시설, 은행 등의 편의시설, 공단 홍보관 및 제품전시·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종합지원센터(2009년 12월)

#### 4.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 가. 법과 제도

개성공단에는 남북간 합의서, 남측 법규, 북측 법규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이 협력해 나가는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이 체결되어 있으며,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기타 남북간 합의서가 개성공단에 적용되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우리측 법규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지원을 비롯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나 출입·체류하는 우리 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제도의 혜택을 개성공단 현지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법률 외에도 개성공단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기금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남북간 합의서

구 분	남북간 합의서
남북경협 4대 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li> <li>•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li> <li>•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li> <li>•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li> </ul>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li> <li>•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li> <li>•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li> <li>•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li> </ul>
기타 관련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li> <li>•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li> <li>•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li> <li>•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li> <li>•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li> </ul>

북한 법규는 2002년 11월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개발규정」 등 16개의 하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행세칙의 제정은 남북이 협력하는 개성공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북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10여개 시행세칙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2010년 6월 기준으로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등 46개의 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 나. 사업지원체계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측의 남북협력지구지원단과 북한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중심으로 지원·관리되고 있다.

2009년 10월 5일 신설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조직시킨 만료에 따라 10월 4일 폐지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업무였던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출입제도 개선 등의 공단 사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한편, 남북한이 합의하는 남북협력지구 개발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설립되었으며, 2009년 12월 기준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5부(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기획법제부) 3팀(법질서팀, 예산회계팀, 출입지원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신속한 출입관리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과 출입업무 지원조직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2009년 한 해 동안 1,495명에 대해 출입·거주증을 발급하고, 437건의 기업 창설·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5. 기업 투자 지원

### 가. 금융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초기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까지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약 478억원,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약 258억원이 대출되었다. 이 제도는 2007년 12월부터 기술보증, 신용보증제도로 대출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7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 38개사에 대해 267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8년 12월 1일 북한이 취한 통행제한 조치에 따른 남북 협력사업 추진기업의 경영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2009년 1월, 22개 업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연장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2009년 1월에 이어 2차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추가 연장해 주었다. 이와 함께 2008년 하반기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후발진출기업에게 60억원 한도 내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0년 6월말까지 9개 업체에 약 18억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고 생산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박탈 등에 따른 사업 중단조치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경험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북한에 의한 통행차단조치 등으로 개성공단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2008년 말 이후 가입업체가 늘어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39개의 개성공단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액은 4,8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기업당 약정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 지급요건을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2009년에 시행한 경험보험 보장한도 확대·지급요건 완화·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통행차단 등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2009년 8월에는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역보험제도(원부자재반출보험, 납품이행보증보험)를 도입함으로써 입주기업이 원부자재 거래 중단과 납품 중단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투자와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금융지원 내역

(단위: 억원)

구분		계	시범단지	본단지1차	본단지2차
기금 대출	1차	760	475	282	-
	2차	60	-	-	60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38개사 251억원			
경협보험		139개사 가입, 보험총액 4,859억원(2010.6월 기준)			

## 나. 판로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07년 4월 2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FTA 타결에 이어, 2009년 10월 15일에는 EU와의 FTA가 체결되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 1년 후에 설치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 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원산지 인정과 함께 역외가공지역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입주기업들의 전시회·판매전 참가를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개성공단 및 남북교역상품전」, 「Buy Korea 2009 Autumn」 전시회에 입주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하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8차 한상대회」 참가, 그리고 국회 의원회관 「개성공단제품 전시판매전」 등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및 개성공단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에 개발한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PEACE WORKS」의 상표를 2009년 1월에 출원하였다.

이와 함께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명함 제작, 전시판매전 행사장 내 배너 게시 등의 홍보활동도 추진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공동 브랜드 종합 대전」 행사에 참가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대형 유통 업체와의 상담회도 주선하였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개최한 소싱(Sourcing) 상담회를 통해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 다. 보건의료 지원

개성공단 내 의료시설로는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이 있다. 동 병원은 2007년 4월 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의 의료시설과 북한의 종합진료소를 하나의 건물에 통합하여 개원하였다. 이 협력병원에서는 남북한 진료소를 구분하여 각각 자기측 근로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수술실·방사선실·검사실·초음파실은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협력병원의 의료진은 우리측에서 의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 2명 등 5명, 그리고 북한측 인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닥터스 진료 실적

(단위: 명)

구 분	전 체	남 측	북 측
2005년	6,169	5,362	807
2006년	7,232	5,834	1,398
2007년	43,413	7,647	35,766
2008년	69,724	7,751	61,973
2009년	78,007	5,803	72,204
2010년 6월말	19,952	2,133	17,819

2009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협력병원에서 진료 받은 북한 근로자는 총 9만 23명으로 내과 3만 7,359명(42%), 산부인과 3만 2,461명(36%), 외과 1만 7,453명(19%), 기타 2,750명(3%)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0년 공단 내에 응급의료병원 설립을 준비중이다.

2009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으로의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진행하였다. 우선 2009년 8월 우리측 출입사무소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개성공단으로 출경하는 근로자의 발열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2009년 11월 14일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 1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이후에는 북측 출입사무소에 열감지 카메라 2식을 무상 대부하는 등 개성공단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조치를 강화하였다. 우선 12월 그린닥터스 의료진에 대해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북한에 2대의 열감지 카메라와 북한 근로자용 타미플루 치료제 1,000명분을 제공하는 등 개성공단에서의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다



개성공단제품 전시판매전(2009.12.2~12.3)

## 라. 근로조건 개선

북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기본노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가급금, 직무 또는 직책급인 장려금 및 상여금인 상금으로 구성된다. 월 최저노임은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합의로 결정하되 전년도 최저노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노임은 50달러에서 시작하여 2007년 8월 1일 52.5달러, 2008년 8월 1일 55.125달러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2009년 8월 1일부터는 57.881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노동규정」에 따라 노동보수 이외에 월 노임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9년 북한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80달러 정도였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6월말 기준 228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휴식시간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샤워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개성공단 택아소 전경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개성공단에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 이 센터는 22개의 강의·실습실 등을 갖추고 1일 약 700여명에 대한 동시교육이 가능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남측 근로자의 자기개발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상황악화에 따른 북한측과의 최종합의 지연으로 아직 본격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교육센터와 함께 2006년부터 추진된 개성공단 내 북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가 남북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2009년 10월 착공해서 12월에 완공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결근율 감소와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탁아소는 지상 2층, 연건평 860㎡ 규모로 영유아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최근 남북관계 상황악화로 인해 북한측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세부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간의 내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해와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사회문화공동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2009년도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및 핵실험 등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2009년 인적교류는 방북인원 267명(32건), 방남인원 63명(5건)으로 2008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2010년 6월말 현재 방북인원은 204명(32건)이며 방남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